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0.18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51)		

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

<의혹 내용>

- '18.10.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中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*이 제기됨

*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중 '15.11.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 ('15.11.27~29일간 평가)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

<참고 내용>

- '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·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

-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*로

*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(인가업무의 수행) 감독원장은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평가위원*은 금융, IT(보안), 핀테크, 법률, 회계, 리스크관리,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되었고,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

* 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

- '15.11.27일부터 **평가위원들이 합숙(2박 3일)**하여 서류검토, 면접(PT)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**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**하였고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

- '15.11.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, 대외에 발표하였음

-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,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*한 것으로 확인하였음

* 최종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
(각 예비인가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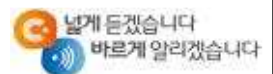
- "'15.11.20일자"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,

-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① ('15.10.30.) 외부평가위원회 위원* 확정

* 7명,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

② ('15.11.9. 1차 회의) 예비인가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(안)의 적정성 논의 후 최종 확정하고, 향후 일정 등 협의

○ 동 회의시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및 보안서약서 징구

③ ('15.11.27.~11.29. 최종회의) 2박 3일간 합숙회의*를 거쳐 인가 신청자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, 평가결과 산정 및 종합의견 작성

* 외부인 출입 차단(경비원 상주) 및 평가기간 중 핸드폰·노트북 수거 등 외부연락 차단